

# 세계적 정원작가들, '전주정원산업박람회' 동참

### 총괄코디네이터 김종호·초청 작가 박정아·조동범·특별 초청작가 황지혜 등 선정

현대 정원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4회 정원산업박람회에 녹여낼 세계적인 정원작가들이 총괄코디네이터와 초청 정원작가, 특별 초청작가로 각각 참여한다.

전주시와 전주정원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전주월드컵광장 일원에서 열릴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의 총괄코디네이터로 김종호 남도정원연구소 대표를, 초청 작가로 박정아 (썬디알에이디자이너그룹 대표)와 조동범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명예교수를, 특별 초청작가로 황지혜 정원디자이너를 선정했다.



전주시와 전주정원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는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의 총괄코디네이터로 김종호 남도정원연구소 대표를, 초청작가로 박정아 (썬디알에이디자이너그룹 대표)와 조동범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명예교수를, 특별 초청작가로 황지혜 정원디자이너를 선정했다.

입충환 녹지정원과정 등 관계자와 박병모 박람회조직위원장이 함께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참석자들은 올해 전주정원산업박람회가 전주의 정원 문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과 방문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전주월드컵광장의 공간별 현상 자문 및 초청작가정원 조

성 장소 답사를 통한 최종 조성 위치 확정 등의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특별 초청작가로 참여기로 한 황지혜 정원디자이너는 영국 웰시플라워연구소에서 3회에 걸쳐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세계적인 정원디자이너로 인정받고 있다. 황 초청작가는 지

난해 12월 우범기 전주시장과의 간담회와 조직위원회의 꾸준한 설득을 통해 특별 초청작가로 참여기로 했다. 또 총괄코디네이터를 맡은 김종호 대표는 순천만국가정원 정원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산림청 생활정원, 정원드림프로젝트, 사회적약자를 위한

가드닝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원 및 조경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을 지녔다. 특히 지난해 전주광역시 정원드림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력을 가졌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은 김 대표가 박람회의 정원 및 전시 연출을 총괄할 적임자로 꼽혔다.

초청작가로 뽑힌 박정아 작가는 생활 밀착형 숲 실외정원 조성 및 정원드림 프로젝트 정원작가 이력을 지녔다. 다수의 국내외 작가정원 공모전에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올해 프랑스 쇼몽 가든페스티벌 작가정원 공모에 당선되며 더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조동범 초청작가는 조경학 분야에서 오랜기간 교육과 연구에 몰두해온 전문가로, 창의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원 디자인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작가정원 선정되바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정원산업전과 정원문화체험프로그램과 더불어 참여 초청작가들의 수준 높은 정원 조성 및 전시는, 전주를 정원 문화와 산업의 중심지로서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중앙 로타리클럽은 지난 16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평화사회복지관에 글로벌 보조금 4700만원(3만6999달러)을 전달했다.

## 지역주민 정신건강 관리 '앞장'

### 전주중앙 로타리클럽, 글로벌 보조금 전달·협약 체결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중앙 로타리클럽(회장 문화식)은 지난 16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평화사회복지관(관장 전길배)에 글로벌 보조금 4700만 원(3만6999달러)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이기운 국제로타리 3670지구 총재와 전주중앙 로타리클럽 및 덕진 로타리클럽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을 위한 심리·정서지원과 정신과 관련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기운 국제로타리 3670지구 총재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회복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이 전달식이 지역주민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중앙로타리클럽은 또 이날 평화사회복지관, 전북신세계병원,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 전주시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전길배 평화사회복지관장은 "최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적절한 예방 및 치료 방안이 부족하다"며 "이번 전달식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를 지원해 로타리클럽의 '세상의 희망을' 슬로건처럼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금암도서관 '도서관 내 미술관' 전시작가 공개 모집

전주시 금암도서관은 미술 작품 전시와 강좌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도서관 내 미술관' 사업의 하반기 전시작가 4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작가모집은 20일부터 오는 3월 22일까지이며 선정된 작가는 올해 하반기인 8월~9월, 11월~12월 중 1개월씩 전시활동을 갖는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 중이며 5년 이내 1회 이상의 개인전 또는 단체전 경험이있는 시각예술 작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운영한 '도서관 내 미술관' 사업에는 11명의 초청작가 전시와 총 16회의 미술관련 강좌를 운영했으며 시민 241명이 참여했다.

접수 방법은 지원 서류를 메일(whdhr1003@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3월 22일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확인 할

이강준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공모를 통해 실력이 있지만 여러 이유로 전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의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많은 이들의 참여를 기대했다. /김욱기 기자

##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

### 전주시, 청년활력수당 참여자 모집... 월 50만원 최대 6개월



한병삼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이 전주시 기업 전담 매니저 교육을 하고 있다.

전주시가 미취업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도 활동 수당을 지급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14일부터 3월 12일까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의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 2024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2024. 2. 14. (수) - 3. 12. (화) 18:00까지

\* 지원대상: 18~34세 청년(2006년 12월 31일 이전생)

\* 지원금액: 월 50만원(6개월간 최대 300만원) 연세별 차등 지급

전주시 081-6151	군산시 454-4384	익산시 859-7382
정읍시 539-6122	남원시 625-6611	장성시 540-2838
완주군 290-3238	진안군 430-6057	무주군 320-2148
장수군 350-2194	임실군 640-4963	순창군 650-1587
고창군 980-2787	부안군 580-4627	정읍시 280-3922

시스템 02-611-0987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감소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높이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직활동 비용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올해 총 892명의 청년에게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1400여 명의 신청자 중 892명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8세~39세 사이 미취업 청년(1984~2006년 생)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기준)여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신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

## 전주시 기업 전담 매니저 운영

전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강한 경제 전주' 구현을 위해 시 공무원들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기업 전담 매니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기업 전담 매니저'는 기업에 전담 공무원을 1:1로 배치해 정기적인 소통 및 현장 방문을 통해 경영상 애로사항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을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 전담 공무원은 자금과 창업, 고용, 판로개척, 기술지원 등 기업 운영

과 기술 개발에 필요한 각종 기업지원 시책도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성장 가능성을 가진 제조기업과 ICT, 탄소, 드론 등 주력산업 기업 등 지역의 중소기업 200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중소기업에게는 팀장급 공무원 200명을 전담으로 매칭했다. 앞으로 시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애로사항을 관련 부서와 신속히 검토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고도화된 복합민원은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극 해결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이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민다.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